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5>

유한한 자원 적절하고 슬기롭게 이용해야

자리이타의 불교경제학 · 물질주의적 근대경제학과 가치관 달라

"경제학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다. 하지만 일단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은 자기 발전의 메커니즘에 따라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은 경제학의 본질을 설명한 말로,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 입문서에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난 경제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5미터짜리 천장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어리석음이 경제학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마찬가지로 그 주체이자 최종목적인 인간을 무시한 경제학은 그 순간부터 무효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T 슈마허는 경제의 성장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슈마허가 주장하는 불교경제학의 중심과제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곧 자연과의 조화와 합목적성의 추구이다. 여기서 자연은 경제의 객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한한 자연을 무한히 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슈마허는 무모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양하고 자원을 적절하고 슬기롭게 이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생태계의 보전과 형평 문제로 이어진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방사능 문제이다. 차라리 그것은 인류사회의 저주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합목적성 문제란 경제학의 최고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당연히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그는 서구 경제학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다. 예컨대 자본장비율과 생산성의 관계와 같은 성장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과 성장의 목적은 고용의 증대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곧 가장 필요한 복지욕구의 충족이 가장 긴급한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슈마허의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물질주의적 근대경제학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불교도는 문명의 본질을 물질적 욕망의 증대가 아닌 인간의 정신적 순수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된 인간성은 본래 인간의 일(work)에 의해서 형성되고, 일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존하는 상황속에서 정당하게 수행된다. 올바른 생활 즉, '정명(正命)'은 불교의 팔정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올바른 생활을 위한 일을 할 기회가 없다면, 그는 절망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소득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숙련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삶의 영양분과 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실체로도 대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는 완전고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 혹은 안정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고용 이하의 수준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경제적이 아닐까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만 한다. 경제학자는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리분석에만 집착하는 물질주의자다. 물질주의자는 주로 재화에 관심을 갖지만, 불교도는 주로 해탈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 · 김필헌

하지만 불교도는 중도주의이기 때문에 물질적 복지를 결코 적대시하지 않는다. 해탈의 길을 막는 것은 부(富)가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이며, 유쾌한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에 탐닉해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경제학의 기초는 절제 즉, 간소화에 있다."

이러한 슈마허의 불교경제론에 이어서 필자의 논점을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경제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외부성(外部性)'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소비생활이 왕성해진 결과 전통적으로 가치 있는 생활습관이 상실되었다고 하자. 전통이 사라진 것은 그 사회에 대해서는 손실일지 모르지만, 그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경제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외부성'인 것이다.

이 같은 경제학이 지닌 한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사회의 유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에는 '가격'이 붙지 않으므로 시장활동이 문화적인 가치를 파괴해도 경제적 손실로서 계산되지 않는다. 문화손실의 비용은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점점 전통문화가 파괴되어도 경제학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란 '화폐적'으로 평가된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개인의 자유의사로 행동하는 '경제인(호모이코노믹스)'에 의해 구성된 시장이다. 이 시장은 '가격'이 붙는 상품만 다룬다. 가격이 붙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비경제적인 것, 예를 들어 문화전통이나 자연환경 같은 '외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이나 환경 어메니티(amenity, 살기 좋은 환경이나 매력있는 환경)의 파괴나 노동의 소외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 역시 경제학의 대상 밖이다.

예를 들어 '자기희생의 정신(利他行)'에 대해서도 경제학이 다루는 경우는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될 때 뿐이다. 모든 것은 이익과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이 근대경제학의 기본인 것이다. 이것을 부연하면,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전통을 지키고 싶다든가, 혹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그런 운동이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장치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다.

그러나 근대경제학 이론에서는 전호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지수(GNH)의 사상에서 '부탄'이 주창하는 그런 발상이 없다. 부탄을 두고 문화전통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스미디어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진국의 정보를 나름대로 얻고 있다. 글로벌환경에서 다소 불편하고 다른 나라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구미 선진국의 물질문명을 따라가기 보다는 전통적인 부탄사회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데에는 국왕자신이 국민들에게 GNH의 정신을 설득하고 다니는 등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국왕이 솔선해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제로 이행한 데에도 나타난 것처럼, 어디까지나 '국민의 총의'를 결집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탄의 정책을 지지하고, 부탄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㉕ 이름

경주 어느 주택가에서 수도검침원이 검침하러 한 집에 들렀다가 빨래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돌에 각문(刻文)이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이 200년 전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왕릉비의 깨어진 윗 조각이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발견자는 신라문화동인회라는 경주 문화사랑 동인모임의 회원이었다는데, 이 분의 호기심과 열정을 일깨우고 이에 전문성을 더해준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코치임에 틀림 없다.

중화사상을 자처하는 중국인, 특히 학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세계 각국이 모두 라틴어에 기원을 둔 공통 원소기호를 영자 표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알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소 하나 하나에 한자(漢字)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면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한자를 새로 만들어 대응한다. 국제화 시대, 특히 학문의 국가 벽이 허물어진지 오래된 현대과학의 시대에 이르러 이와 같은 국수주의의 대가로 치뤄야 하는 여러 직 · 간접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바꾸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바탕을 흐르는 생각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 요소는 세계와 우주의 중심인 중국어로 표시돼야 한다는 입장 위에 서있다. 이렇게 자부심 강한 중국인이 자기네 나라 말의 자전(字典) 중 남의 나라에서 편찬한 사전을 표절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겠는가?

허달의 불교와 코칭

'부처' 떼어버리고 가르침만 보여주라

필자도 소장하여 자주 애용하고 있는 모두 열두 권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이 바로 문제의 사전인데, 중국이 자랑하는 <강희자전(康熙字典)>보다 더 방대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중국학자들도 인정하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 모로하시 하쓰지라는 분이 눈을 너무 혹사해 한쪽 눈을 실명하면서까지 일생을 바쳐 편찬한 것인데, 그 편찬 동기가 도쿄고등사범 시절의 담임 마쓰이 간지 선생의 "한자 사전은 쓸만한 것이 없으니 한번 만들어 보라"는 한 마디였다니 마쓰이 선생은 대단한 코치, 모로하시 씨는 대단히 진국인 고객이었던 셈이다.

동학사에서 강백(講伯) 스님들을 모시고 '리더십' 소개를 하고 난 2006년의 가을이었다. 스님들과 포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교를 가르치는데 불교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나누게 됐다. 세상 만사 그저 그러함이 착(着)을 떠나면 바로 불법이니, 부처 떼어버리고 가르침만 보여주는 것도 모든 중생에 대한 설법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들었다.

코칭 역시 그러하다.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배려하고 경청하며,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질문을 그의 언어로 고안해 물어주고, 그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정/칭찬해 용기를 북돋으며, 때로 그의 고착된 사고에 도전하여 기왓장 갈아 거울 만들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야와 시각을 바꾸어 주는 코칭적 삶의 방식을 일상(日常)으로 삼게 된다면 굳이 코칭이란 이름을 빌어 번거로움을 자청할 필요가 없이도 시너지를 이루는 상의성(相依性)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내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에 따라가서 머리 커트 하던 날, 내 머리를 만져주던 쥴리 라는 애칭의 미용사 아가씨에게 물었다. "헤어 디자인 공부는 어떻게 한다지?" 대답 없이 입을 손으로 가리며 웃었는데, 아마도 성찰 질문이 되었을 것이다.

'금배지 차라리 떼어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금배지의 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꾸짖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고 보니 20~30년 전까지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니던 대학생들의 배지가 모르는 새 사라져 버렸다. 코칭이 삶의 방식이라면, 코치도 이처럼 배지를 떼어버려야 진정한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닐까?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이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다.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름과 실질을 부합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름을 바르게 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이름에 부합하는 실질이 없으면 바른 이름이라는 것이 허상을 만들 뿐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풀이 하기도 하는데, 내 소견으로는 다만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겠다.

더 들어가면 모두 무명(無明)의 여섯 가지 거친 번뇌 중 계명자상(計名字相)의 미혹일 뿐이니 이를 떼어버려야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트인다는 뜻이 자못 자명하다 하지 않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